

내년 FA시장은 ‘A급 외야수 천하’

민병헌·손아섭·정의윤 등 자격 요건
김주찬·이용규·이종욱 등 2번째 FA

올해 FA(프리에이전트)시장은 유독 대어들이 많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 중에서도 향후 몇 년간 나오지 않은 ‘A급’ 선발투수 풍년이었다. 양현종(KIA 잔류), 김광현(SK 잔류), 차우찬(LG 이적) 등 국가대표 좌완 에이스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왔다.

1년 뒤 FA 시장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무계중심이 선발투수에 있었다면, 내년엔 외야수다. 올해 FA 시장에 외야수는 최형우(KIA 이적)와 나지완(KIA 잔류)뿐이었다.

그러나 내년엔 두산 민병헌, 롯데 손아섭, SK 정의윤 등 주축 외야수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FA 재자격을 취득하는 선수들도 있다. KIA 김주찬과 한화 이용규, NC 이종욱, kt 이대형 등의 외야수가 2번째 ‘FA 대박’을 노린다. 이들 모두 첫 번째 FA 때 대항계약을 해낸 선수들이다. 세월의 흐름이 있어 첫 번째 FA보단 몸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히 리그 최정상급 기록을 보이고 있다.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외야수 시장에 몸값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외야 보장이 필요한 구단에선 선택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병헌과 손아섭, 정의윤 등은 중심타선의 힘 자체를 바꿔놓을 만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



한화 이종욱



SK 정의윤



두산 민병헌



KIA 김주찬

민병헌과 손아섭은 정교함과 파워를 두루 갖췄다. 나란히 타격 16위(0.325), 17위(0.323)에 올랐고, 나란히 16홈런을 기록했다. 3할 타율에 두 자릿수 홈런을 꾸준히 기록할 수 있어 3번 타수에서 클린업 트리오를 이끌 수 있다. 정의윤은 SK 이적 후 잠재력을 터뜨려 풀타임 4번타자로 성장했다. 올해 전 경기에 나서 타율 0.311·27홈런·100타점을 기

록했다.

재자격을 얻는 선수들 중에서도 김주찬이 정교함과 장타력을 모두 갖췄다. 김주찬은 올해 건강함까지 과시하며 130경기에 나서 타격 4위(0.346)에 23홈런·101타점을 기록했다. 이용규와 이대형은 여전히 도루 순위 상위권에 들 정도로 빠른 발을 과시한다. 이용규는 타격 3위(0.352)에 21도루를 해냈고, 이대형은 타율

0.320에 최다 안타 3위(192개), 도루 3위(37개)로 더욱 뛰어난 기록을 냈다. 손아섭 역시 올해 42도루로 도루 2위에 올랐다.

2번째 FA들이 여전히 가치가 높은 건 올해 기록만 봐도 알 수 있다. 세대교체가 늦고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더디다는 말이지만, 예비 FA 선수들에겐 여전히 좋은 기회다.

이명호 기자 nirvana@donga.com

“장타력 갖춘 이대호, 지바 롯데엔 매력적인 카드”

6년연속 팀 홈런 두 자릿수에 그쳐
일본 매체 “NPB 3~4개 구단 관심”

‘빅보이’ 이대호(34)의 2017시즌 행선지는 비시즌 최고의 이슈 중 하나다. KBO리그와 메이저리그(ML), 일본프로야구(NPB)를 모두 경험한 강타자에게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FA(프리에이전트) 신분인 이대호는 출전 기회를 최우선으로 놓고 새 동지를 찾고 있다. ML 재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NPB 복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실제로 지바 롯데와 라쿠텐 등 NPB의 3~4개 구단이 이대호 영입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호는 2012~2013시즌 오릭스, 2014~2015시즌 소프트뱅크에서 뛰며 4년간(570경기) 타율 0.293, 98홈런, 348타점을 기록했다. NPB를

대표하는 중심타자들과 견지도 손색없는 성적을 거두며 검증을 마쳤다.

팀당 확실한 외국인타자를 한 명씩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NPB의 특징이다. 지바 롯데가 이대호 영입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1월 “지바 롯데가 이대호의 영입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일본 ‘산케이스포츠’의 보도 이후 기존 외국인타자 알프레도 데스파이네가 소프트뱅크로 이적한 터라 ‘거포 외국인타자’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장타력을 인정받은 브랜드 레더스(니혼햄·올 시즌 39홈런), 에르네스토 메히아(세이부·35홈런), 호세 로페즈(요코하마·34홈런), 블라디미르 발렌틴(아쿠르트·31홈런), 쥘리스 휠러(라쿠텐·27홈런) 등을 보면 속이 쓰릴 수밖에 없다.

지바 롯데는 2011년부터 6년 연속 팀 홈런이 두 자릿수에 그쳤다. 장타력을 갖춘 타자가 부족했다. 올 시즌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타자

는 데스파이네(24홈런)와 야마이코 나바로(10홈런)가 전부인데, 둘 다 팀을 떠났다. 또 최근 2년간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5명의 타자 중 기요야 이쿠히로를 제외한 4명이 외국인이었다.

토종선수들도 홈런과 거리가 멀다. 분위기를 바꿔줄 한 방을 해결해줄 타자가 없어 고민이 크다. 차체대 홈런왕으로 평가받는 이노우에 세이야는 3년간 통산 홈런이 4개뿐이다. 올 시즌 퍼시픽리그 타격왕(0.339) 가쿠나가 가쓰야는 전형적인 콘택트히터로 2007년 데뷔 후 한 시즌 최다홈런이 8개다. 포지션을 살펴봐도 최다출장 1루수는 36경기를 뛴 호소야 게이였다. 1루 수비가 가능한 데다 장타력, 콘택트 능력을 모두 갖춘 이대호가 필요한 이유다. 일본 야구 전문매체 ‘베이스볼 킹’도 “지바롯데에 이대호는 매력적인 카드”라고 전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이대호는 출전 기회를 최우선으로 놓고 새로운 행선지를 찾고 있다. 한 방을 갖춘 타자가 부족한 데다 확실한 1루수가 없는 일본프로야구 지바 롯데에 이대호는 매력적인 존재다. 스포츠동아 DB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동산고 김혜성 ‘이영민 타격상’ 수상



김혜성

동산고 내야수 김혜성(18·백선 입단 예정)이 고교야구 최고타자에게 수여하는 ‘이영민 타격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야구협회관리위원회(위원장 정진구)는 28일 “2016년 고교생 타자 가운데 타율 1위를 기록한 김혜성을 2016년도 이영민 타격상 수상자로 최종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김혜성은 올해 고교야구 주말리그와 전국고교야구대회, 전국체전에서 27경기에 나서 타율 0.489(94타수 46안타)를 기록했다.

배구

‘3전4기’ 삼성화재, 현대캐피탈 잡고 4연패 탈출

타이스 36득점 맹활약…팀 4위로
노재욱 빠진 현대캐피탈 4연승 끝



삼성화재가 V-클래식 4번째 도전 만에 현대캐피탈을 잡았다. 삼성화재는 28일 현대캐피탈의 홈코트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2016~2017 NH농협 V리그’ 4라운드 첫 경기를 세트스코어 3-1(25-23 25-23 14-25 25-18)로 승리했다.

V-클래식의 향배는 의외의 지점에서 갈렸다. 삼성화재는 라이트 박철우가 독감에 걸려 천안에 오지도 못했다. 반면 현대캐피탈은 세터 노재욱이 27일 최종 훈련을 마친 뒤 허리통증을 호소해 체육관에 오지 못했다.

무릎을 열어본 결과, 세터가 빠진 현대캐피탈의 타격이 더 컸다. 현대캐피탈 최태웅 감독은 “삼성화재를 대비한 모든 훈련을 노재욱 위주로 마쳤는데 아프다고 한다”고 난감함을 드러냈다. 리시브된 볼을 공격수에게 배급하는 세터 교체가 공격수들에게 어떤 파장을 미치는지는 고스란히 드러났다. 현대캐피탈은 백업 세터 이승원을 투입했는데 능력의 문제를 떠나서 공격수들이 이질감을 노출했다. 특히 외국인선수 톤

은 2세트까지 단 1점도 얻어내지 못했다. 현대캐피탈의 장점인 센터공격도 살아나지 못했다. 문성민(24점)을 제외하면 10점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없었다. 라이트 문성민에게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의 결과, 블로킹에서 삼성화재(11개)가 현대캐피탈(6개)을 압도하는 이변(?)이 빚어졌다.

현대캐피탈은 장기인 강한 서브에 이은 블로킹 라인이 작동하지 않았다. 서브는 여전히 위력적(10득점)이었으나 블로킹이 안 됐다. 2세트까지 블로킹이 0개였다. 특히 삼성화재 외국인 공격수 타이스를 거의 막지 못했다.

타이스는 61.53%의 공격성공률로 36득점을 올렸다. 삼성화재는 박철우의 공백을 범실 감소로 메웠다. 특히 서브 실수를 의도적으로 감소시켰는데 효과를 봤다.

패한 현대캐피탈은 미래의 레프트 자원인 루키 허수봉(7점)과 이시우(6점)의 가능성을 확인한데 의미를 뒤야 했다. 현대캐피탈(13승6패)은 4연승을 마감했다. 1경기 탈 치른 2위 한국전력(35점)과의 승점 3점의 격차를 벌리는데 실패했다. 현대캐피탈은 노재욱의 허리상대가 극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31일 한국전력과 맞대결까지 계속 부담을 이어갈 상황으로 몰렸다.

반면 삼성화재(8승11패)는 4연패를 탈출했다. 승점 29로 우리카드(승점 28)를 제치고 4위로 올라섰다. 천안 |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삼성화재 외국인선수 타이스가 28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캐피탈과의 시즌 4번째 ‘V-클래식’에서 상대 블로킹을 피해 스파이크를 하고 있다. 타이스는 36득점하며 승리를 이끌었다. 천안 | 김진현 기자 kwangshin00@donga.com

‘FA 등급제’ 시행…V리그 남자부 연쇄이동?

연봉 기준 3단계 차등…선수 이적 늘어날 듯

V리그 남자부가 이적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프리에이전트(FA) 보상규정을 대폭 완화해 준척급 선수들의 이동할 문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한 것이다.

KOVO(한국배구연맹)는 28일 “남자부 FA 보상규정을 변경한다는 4차 이사회 의결에 따라 2017~2018시즌 종료 직후 ‘FA 등급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FA 보상규정은 모든 선수들에게 동일한 조건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한 FA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경우 영입팀은 원 소속팀에게 해당선수의 직전 시즌 연봉의 200%와 보상선수 1명 혹은 직전 시즌의 연봉 300%를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새 안건은 연봉을 기준으로 3단계 차등을 두었다. 먼저 A그룹은 연봉 2억5000만원 이상의 FA 선수들로 정해 기준과 같은 보상규정을 적용받는다. B그룹은 연봉 1억원 이상에서 2억5000만원 미만의 선수들로 보상선수 없이 직전 시즌 연봉의 300%만 보상지급하면 된다. 마지막 C그룹은 연봉 1억원 미만의 선수들로 직전 시즌 연봉의 150%가 보상규모다. 역시 보상선수를 내줄 필요가 없다.

KOVO가 FA 등급제를 시행한데는 기존 규정이 준척급 선수들의 자유로운 이적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FA 영입에 따른 지출이 커 대부분의 구단들이 쉽사리 외부 선수

V리그 남자부 프리에이전트(FA) 보상규정 변경안

연봉 구분	보상규정
A그룹	2억5000만원 이상 전 시즌 연봉 200% + 보상선수 1명
B그룹	1억원 이상~ 2억5000만원 미만 전 시즌 연봉 300%
C그룹	1억원 미만 전 시즌 연봉 150%

※2017~2018시즌 종료 직후 시행

를 영입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2015~2016시즌 종료 후 열린 FA 시장에선 20명이 자격을 얻었지만, 이선규(35) 한 명만이 삼성화재에서 KB손해보험으로 팀을 옮겼다. 당시 임동규(은퇴 결정)를 제외한 나머지 18명은 모두 원소속팀에 잔류했다. 2015년과 2014년에도 FA 이적선수는 없었다.

김고 긴 논의 끝에 FA 등급제가 시행된 만큼 앞으로 선수들의 이적은 활기를 띌 전망이다. 특히 연봉 2억5000만원 미만의 선수의 경우 보상선수를 내줄 필요가 없다는 점이 주요 포인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구단 입장에서든 반가운 소식이다. 필요한 포지션의 선수를 영입할 때 부담이 적어 전력 보강을 위해 적재적소에 투자가 가능하다. 한편 여자부의 경우 상기 안을 바탕으로 등급제 도입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고봉준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